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1. 7.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 “일어나라 주의 백성” -----

다 같 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벌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브릿지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코러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대표 기도 -----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

기 도 자

성경 봉독 ----- 이사야 60장 1~9절 -----

다 같 이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깁깝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9. 곧 섬들이 나를 양명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말씀 나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인도자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캄캄함’과 ‘어둠’에 덮여 있는 듯합니다. 경제적인 불황, 관계의 갈등, 영적인 침체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첫마디를 던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명령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우리 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가능합니다. 올 한 해, 각 가정마다 삶에 비친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누리고 전파해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광의 빛을 소유하는 삶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반사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세상이 어둠에 잠길 때, 성도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이 빛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나아오게 만드는 매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내 형편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영적 기지개를 켜서 승리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복과 모여듦의 축복

하나님의 빛이 밝기 시작할 때, 잃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본문 4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흩어졌던 가족과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풍요의 회복도 있습니다.

본문 5절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올리라”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귀영화를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며”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새해에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개인과 가정을 넘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셋째, 사명을 향한 가속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신속하고 영화롭게 사용하십니다.

본문 8절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역과 부흥이 얼마나 신속하고 역동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작년의 실패와 어두운 기억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제 슬픔의 옷을 벗고, 은혜의 빛을 덧입으십시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여, 열방에 찬송을 전파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 “일어나리”는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며,
내가 일어나야 할 자리와 상황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최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회복과 모여듦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회복시키시길 바라는 영역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1.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도록
 2. 갈등과 분열이 아닌 하나님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3.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4. 한국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5. 한국이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나라로 계속 쓰임받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위에 임하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아닌 주의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삶을 통해 주의 빛이 흘러가게 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